

■ 주요 기사

○ 10월 고용동향 관련 (6건)

조선	청년 실업률, 외환위기 수준까지 치솟아
동아	제조업 취업자 1년새 12만명 감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매경	청년실업 8.5%...17년만에 최악
한경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 7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경향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제조업 일자리 11만개 이상 사라졌다
한겨레	나라 뒤숭숭한데 '고용한파'까지...10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

○ 가임여성 감소 관련 (2건)

동아	가임여성 10년전 비해 82만명 줄어
경향	가임 여성 줄어들어 인구감소 못 막는다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청년 실업률, 외환위기 수준까지 치솟아 B1면
		내용	10월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개월 연속(전년 동월 대비) 감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오랜 경기 침체 여파로 고용 한파(寒波)가 닥친 것
중앙	고용 복지	제목	기업 채용 우대, 공학 > 경상 > 예체능 A23면
		내용	잡코리아가 올 3분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직무별 채용공고 22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우대'를 표시한 전공은 공학계열(31.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사회계열(30.1%), 예체능계열(19.2%) 순
동아	고용 복지	제목	가임여성 10년전 비해 82만명 줄어 A24면
		내용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가임 여성 수는 2005년 1361만5000명에서 지난해 1279만6000명으로 81만9000명(6.0%)이 감소
		제목	제조업 취업자 1년새 12만명 감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B4면
		내용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8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2, 3년 전만 해도 30만~50만 명 선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20만 명대로 굳어지는 모습
매경	고용 복지	제목	청년실업 8.5%...17년만에 최악 A1면
		내용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불황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8.5%까지 치솟았다. 월별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제목	청년실업률 8.5%...'최악의 구직난' 해법은 A17면
		내용	공공부문 일자리가 단기적인 '청년인턴'에 맞춰져 있는데,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청년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없는 점도 문제. 신생 기업을 지원해 창업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경	노동	제목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끝 안보이는 철도파업 A31면
		내용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사흘간 진행된 코레일 노사의 집중교섭이 결렬. 44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고용 복지	제목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 7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A18면
		내용	부실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수출 부진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전체 실업률은 10월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고용 복지	제목	가임 여성 줄어들어 인구감소 못 막는다 A15면
		내용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임여성수가 82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당분간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어, 저출산 대책 정책방향과 내용수정이 필요
		제목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제조업 일자리 11만개 이상 사라졌다 A18면
		내용	수출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1만개 넘게 사라지면서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한겨레	고용 복지	제목	한국 노인, 경제활동 서글픈 상위권...“생계 때문” 15면
		내용	서울연구원 ‘활동적 노화지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서울 노인들, 생계형 노동·손주 돌봄·빈곤 위험↑, 정치 참여나 독립생활↓, 빈곤 위험↑
		제목	나라 뒤숭숭한데 ‘고용한파’까지...10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 18면
		내용	취업자 증가폭 2개월 연속 20만명대 그쳐. 제조업 취업자 7년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청년실업률 8.5%...1999년 수준으로 치솟아. 기획재정부 “고용시장 하방리스크 커질 가능성”

<끝>